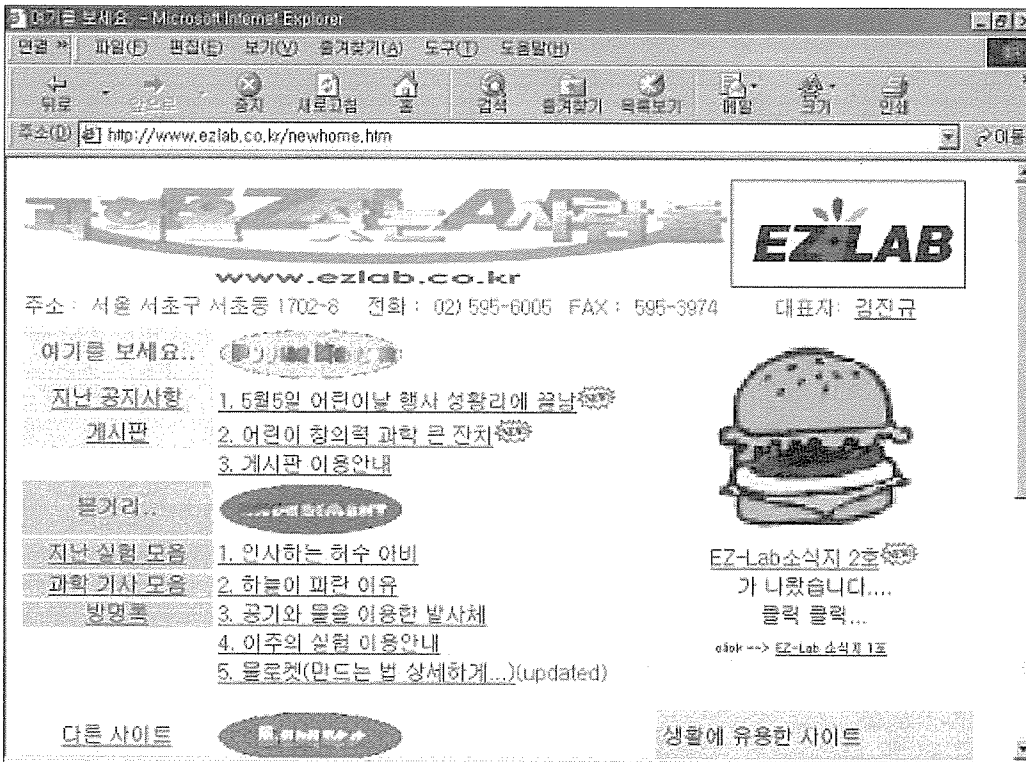


과학을 찾는 사람들(www.ezlab.co.kr)



이용한 이 실험은 빛의 산란이라는 원리를 가르쳐 준다. 폭 폭 찌는 여름날,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으며 날아오르는 물로켓은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여기에서는 보기만 하던 물로켓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응용한 물로켓은 어린이들에게 과학원리를 가르쳐주는 좋은 장난감이다. 이러한 각종 실험들은 단순히 설명과 그림 뿐만 아니라 실험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알아줘야 할 사항

이 홈페이지는 제목 그대로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실험을 통해 원리를 배우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표적인 곳이 사이버 실험실이다. 이 곳에서는 몇가지 주제를 정해 놓고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인사하는 허수아비', '하늘이 파란 이유', '공기와 물을 이용한 발사체', '물로켓 만드는 방법'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인사하는 허수아비'는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하는 허수아비 장난감을 만드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요구르트와 전지식, 에나멜선을 이용해 설명대로 그림을 보며 따라 만들다보면 어느새 전자석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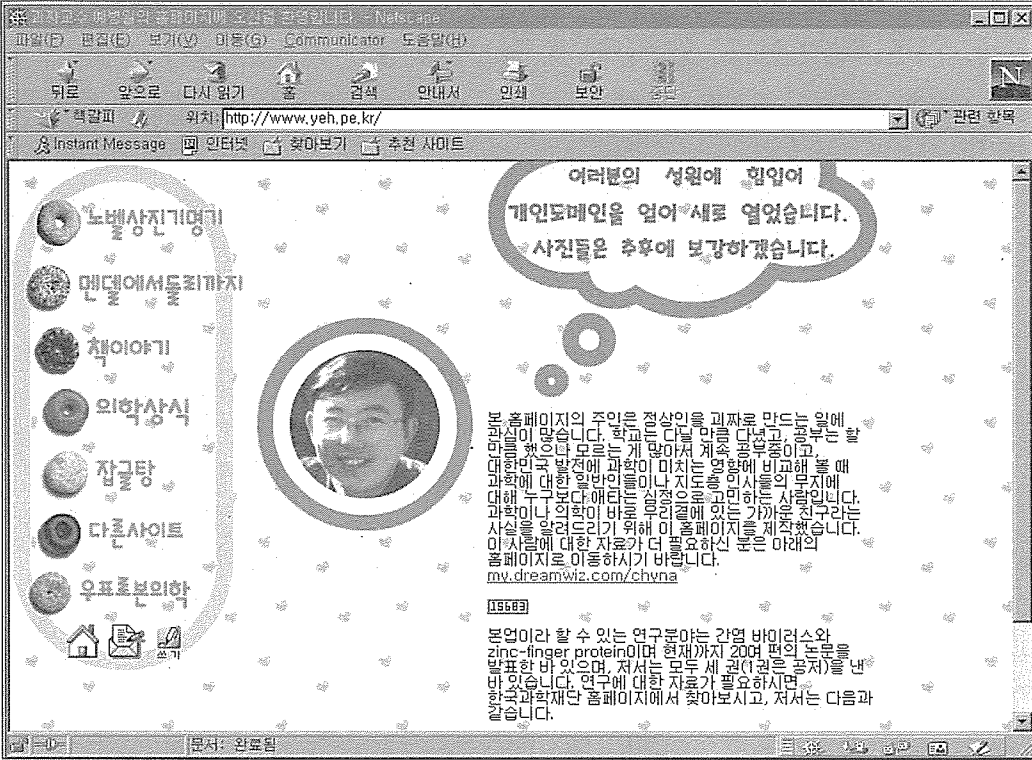
'하늘이 파란 이유'에서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를 실험으로 터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다. 나이 어린 유아들에게는 이론을 아무리 설명해 봐야 납득하기 힘든 법. 이럴 때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설명해 놓은 원리대로 따라하다보면 금방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다. 플래시와 수조를

들을 함께 적어 놓았다. 따라서 부모나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참고서 구실을 한다. 이와 함께 이 곳에는 최신 과학소식들도 신고 있다. 지구 위에 뚫려 있는 오존 구멍이 중국 대륙의 두배 크기만 하다는 소식과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재미있는 콤플렉스 이야기, 세계 각국이 물로 가는 자동차 개발에 한창 몰두해 있다는 소식 등을 함께 전하고 있다. 또 지난 실험과 흘러간 기사들도 묶어 놓아 언제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실험 코너에서는 투명 비누 만드는 방법, 병 안에 물 가두기, 물 속에서 양초 태우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팝콘이 튀겨지는 원리와 물이 100℃에서 끓는 이유, 정전기가 오르는 이유 등을 실험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각종 과학실험을 즐길 수 있는 오비탈,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등 다른 사이트들을 연결해 놓은 링크 코너와 서울시 버스노선 안내, 국내 최대의 인터넷사전 등 생활에 유용한 사이트들을 소개한 코너가 볼 만하다.



괴짜교수 예병일(www.yeh.pe.kr)



한 유일한 수상자 도마크, 유일한 동양인 수상자 토네가와, 우표모델로 최다 출연한 코흐, 잘못된 발견으로 수상자 대열에 오른 오초아, 화학요법 창시자 에틀리히에 대한 내용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

‘멘델에서 돌리까지’ 코너는 유전자 연구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과 연구실적을 정리해 놓은 곳이다. 이중나선의 비밀, 유전암호를 해독하라, DNA와 단백질 서열 결정법을 창안한 생거, 괴

의학자인 예병일씨가 과학과 의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개인 홈페이지. 연구분야는 간염 바이러스와 zinc-finger protein이며 현재까지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 ‘사랑과 우정의 교실’ (푸른 나무, 1997), ‘낙태·포르노·인간복제’ (도서출판 고원, 1999), ‘의학사의 숨은 이야기’ (도서출판 한울, 1999) 등 3권의 저서가 있다. 이 곳은 ‘노벨상 진기명기’, ‘멘델에서 돌리까지’, ‘책이야기’, ‘의학상식’, ‘우표로 본 의학’ 등 제목만 봐도 재미있는 코너들로 구성돼 있다.

‘노벨상 진기명기’ 코너는 노벨상 가운데 생리의학상 분야 가운데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들을 모아 놓았다.

최초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베링, 최연소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밴딩, 최연장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라우스, 최연소 연구업적으로 수상한 레더버그, 최초의 여성, 그리고 유일한 부부 수상자 코리, 노벨상을 거부

짜 과학자의 중합효소 연쇄반응 발견 등 유전자에 얽힌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우표로 본 의학’은 이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코너.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의학을 지배한 갈레노스, 혈액이 순환함을 발견한 하베이, 외로운 선각자 켈멜바이스, 미생물학의 창시자 파스퇴르, 무균법을 발견한 리스터, 현대 병리학의 아버지 피르코프, 비타민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에이크만, 정신병 치료에 수술법을 도입한 모니즈 등 우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①7

崔然軫 (한국일보 인터넷부 기자)